

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October 19, 2025, 10:30 a.m.

오순절 이후 열아홉번째 주일 (Year C)

The Nineteenth Sunday after Pentecost (Year C)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예배 순서 WORSHIP OR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예배 기도 Invoca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069 온 천하 만물 우리러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C1028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Just Let Me Say

H620 여기에 모인 우리 We Will Keep Our Faith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누가복음 Luke 18:1-8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기도 Prayer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C1198 우리 함께 기도해 Together We Pray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수요 성경 공부 매주 수요일 8 시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 신도사무총회 10 월 19 일 - 예산

이번주의 질문: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 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예레미야 JEREMIAH 31:27-34

27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28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29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30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3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PSALM 119:97-104

97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8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 주의 법도들을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101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2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4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성경 공부 초점: *말씀을 전파하라*

생명의 말씀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편지는 신앙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 따르는 도전과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이 주는 조언과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내졌지만,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권면과 격려의 말,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맡은 이에게 멘토가 전해주는 지혜로운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1. 당신은 조언과 상담을 위해 누구에게 가나요? 왜 그 사람을 선택했나요?
2. 신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성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앞에 기록된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신앙인의 삶의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도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을 네가 잘 알았거니와...” (디모데후서 3 장 10–11 절, 개역개정)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 장 14–15 절, 개역개정) 분명히 멘토는 디모데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디모데에게 주어졌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어진 선택입니다.

3. 1세기 당시 크리스찬 멘토로서 활동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4. 그 시대의 선택들은 오늘날보다 더 분명했을까요, 아니면 더 어려웠을까요?

이 구절들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굳게 지탱하게 하는 두 가지 기둥이 나타납니다. 첫째 기둥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개역개정)

5. 믿음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 기둥은 거룩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inspiration)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개역개정)

6.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나요?

7. 성경은 어떻게 책망하고, 교정하며, 의로 교육하나요?

이처럼 믿음의 두 기둥이 단단히 세워진 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권면을 강조합니다. 그 권면은 서약처럼 엄숙하게 선포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중히 권면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2절, 개역개정)

이것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며,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부르심이자,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수잔 목사는 병실에 있는 스미스 박사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어 결국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섬기며 60년이 넘도록 교회에서 사역해 온 스미스 박사는, 이제 자신의 인생 여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수잔 목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역 초창기부터 스미스 박사는 언제나 수잔 목사의 멘토였습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그녀를 가르쳤고, 공부 중에 또는 의심과 질문의 시기에 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에 대해, 사역의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는 말과 침묵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끝나갈 무렵, 수잔 목사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스미스 박사는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더니, 평생을 신앙과 교회에 헌신한 이 신학자가 눈가에 미소를 머금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8. 스미스 박사의 대답이 당신에게 놀랍게 들렸나요?

9. 그의 대답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권면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15절, 개역개정)

그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복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스미스 박사와 수잔 목사 모두가 평생

선포하고 살아온 메시지였으며, 또한 디모데에게 주어진 부르심 —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 장 5 절, 개역개정) — 를 여전히 이어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부르심은 단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그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10. 당신에게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11.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당신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주어져 있나요?

우리 삶에서 믿음 실천하기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우리의 사역의 부르심은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위에 부어집니다. 침례를 베푸는 이는 새로 침례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루터교 예전서 p.231 / Evangelical Lutheran Worship, p.231) 이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르심입니다.

침례에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집니다 — 세례 받은 이의 믿음을 양육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12. 당신은 누구의 믿음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13. 당신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반영하고 있나요?

마지막 말씀

우리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말씀과 다른 이들의 신실한 선포를 통해 우리 각자를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뜻을 주셨으니,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할 힘과 능력도 허락하소서. 아멘.

THE GOSPEL 누가복음 LUKE 18:1-8

- 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 2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 4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 5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 6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 7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